

지역 소식통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현주)는 9일 부안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교사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친구야! 고마워~'를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폭력예방 강사의 지도로 각반별로 1~4반까지 찾아가는 소그룹 단위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에서 이수경(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 지도강사는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등 자신과 친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도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백구면, 고구마 나눔사업

김제시 백구면(면장 최희호)과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은희)는 주민자치위원회 2017 지역특색사업으로 '백구사랑, 고구마 나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9일 2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역특색사업으로 '백구사랑, 고구마 나눔사업'으로 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단합과 화합으로 우의를 다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강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백구사랑, 고구마 나눔사업'은 백구면 주민의 무상임대 토지 1,127㎡에 이르는 고구마를 재배하여 8월에 수확한 고구마를 경로당 및 어려운 이웃에 배부할 계획이며 또한 판매를 통해 마련한 기금은 이웃돕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이버 평생학습 무료 강좌

김제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온가족이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무료 강좌를 새롭게 단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습콘텐츠로 교체했다.

2007년부터 운영해온 김제시 사이버 학습센터가 시민들의 학습 욕구와 다변화 하는 학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는 10개 분야 430개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며 그중 309개 강좌는 수강 편의를 위해 모바일로도 제공된다.

또한 매월 신규과정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강좌로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취업·자격증(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민간자격증 등)△정보화(엑셀, 포토샵 등)△자녀치지도△재테크△문화△유·아동 등이 있다.

수강방법은 김제시 홈페이지(ht tp://www.gimj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김제시 홈페이지내 사이버학습센터 또는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ht tp://cyber.gimje.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듣고 싶은 강좌를 수강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 4대 사회악 예방 박차

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졸업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4대 사회악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정읍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경찰협력단체인 여성보호위원(위원장 오은이)과, 지역경찰관 등 30여명과 함께 정읍여자중학교 졸업식장을 방문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재해예방사업 추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완료키로

정읍시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재해예방사업에 가속도를 붙인다.

시는 "올해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와 붕괴, 유실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현재 추진 중인 태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0억원)과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72억원)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시작, 오는 2019년까지 추진 예정인 금봉천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한 금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하 금봉지구개선사업) 추진

에도 만전을 기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금봉천의 상류부가 산지로 구성돼 있어 집중호우 시 유속이 빨라 하천 주변의 주거와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봉지구 개선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업을 통해 하천 폭을 확장하고 법면(法面)을 보강함으로써 자연재해 발생 요인을 미리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모두 100억원으로,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단계 중에 있다. 실시단계 용역 후 7월부터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정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시작한다. 산외면 정량

리 침수위험지역을 상반기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새로 지정하고 정량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 예보와 경보시설 성능 개선과 설치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에는 모두 1억6,600만원이 투입되며, 사업대상은 8개 지역(신태인파 칠보, 고부, 소성, 영원, 산외, 상교, 내장상 등) 17개소이다.

시는 재난 예보와 경보시설시설인 강우와 온도, 습도 등의 통합 자동기상관측 시설과 강수량계 등의 시설 성능을 개선하고 음성통보시스템과 재해문자 전광판 등 신규 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2017 정읍시민청안대회'를 통해 뿌리단계 20팀과 줄기단계 9팀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정읍시, 뿌리·줄기단계 29명 선정...사업 본격화

팀 당 실행자금 300만원 지원... 공동체 활성화 통한 지역발전 견인 기대

정읍시가 '2017 정읍시민청안대회'를 통해 뿌리단계 20팀과 줄기단계 9팀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번에 선발된 뿌리단계 공동체 20팀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정읍시민청안대회 공모를 통해 선정됐고 참가확보를 수료했다.

시는 팀 당 실행자금으로 300만원을 지원,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행토록 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줄기단계로 선정된 9개 공동체에는 각 3천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

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정읍시민청안대회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읍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형 마을만들기의 공동체 육성 프로젝트이다.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든다'는 목표로 시민들과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씨앗·뿌리·줄기·열매단계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씨앗단계인 시민청안학교를 거쳐,

시범사업 추진단계인 뿌리단계, 자립형사업 추진단계인 줄기단계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열매단계를 통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중앙공모 참여와 추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읍시민청안대회를 통해 334개의 공동체가 발굴됐고 열매단계 23개, 줄기단계 42개, 뿌리단계 185개 팀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3월부터 11월까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부안군은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통합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이며 모집인원은 1055명으로 각 읍면 사무소와 민간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창북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노인이며 지역환경개선, 노노케어, 경로당 관리원, 나눔이 있는 채용발상 등 9개 사업 중 참여를 원하는 분야에 대해 해당 기관을 방문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선발에

서 제외되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등 선발기준표에 근거해 선발된 참여자는 1일 3시간, 월 10일 근무하고 월 22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나눔이 있는 채용발상사업과 산기경로당 함께 하는 영농사업으로 부안군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시장형 사업이며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할 수 있어 어르신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어르신에게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매니페스토의 중요성과 실천' 강연 실시

김제시는 매니페스토를 시민들에게 알기쉽게 소개하고 참여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주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제시는 9일 참공약 실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지평선아카데미에 초빙하여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매니페스토의 중요성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라틴어의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출마자와 유권자간의 사회적 계약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

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이광재 강사는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정치인과 주민간의 소통·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참공약 실천과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김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제시는 민선6기 공약사업의 이행을 제고를 위해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 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참공약 실천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해 민선6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덕면, 독거노인 주택 방한·방풍작업 실시

김제시 성덕면(면장 신형순)은 9일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공동체와 함께 소석마을 독거노인 서옥춘(79)씨 주택에 방한·방풍작업을 실시하였다.

성덕면은 작년 7월 18일 희망드림 복지공동체 발대식과 함께 독거노인 빈집정비 및 이삿짐 나르기, 전기배선 및 전구교체사업, 장작 만들기, 비닐하우스 정비사업, 독거노인 병원진료, 방풍작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

하여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새해 첫 도움의 손길은 소석마을 주민들의 건의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찾아가 긴급히 막바지 추위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현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재료를 파악 후 방풍작업 및 전기배선 교체 등 다양한 기부를 실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